

소년소녀가장의 탄력성과 관련된 개인특성 분석: 지능, 성격,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도 남 희 박 경 자*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본 연구는 소년소녀가장 청소년들을 사회적 유능성과 주관적 안녕감으로 측정된 적응수준에 따라 탄력집단, 유약집단과 취약집단으로 구분하고, 지능, 성격, 성취동기의 개인적 특성이 이러한 세 집단을 의미 있게 변별하는 보호요소가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적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 중학생 104명(남: 50명, 여: 54명)이었다. 개별 면접을 통해 소년소녀가장의 주관적 안녕감, 지능 검사, 성격 검사, 성취 동기를 측정하였고 교사 보고를 통해 사회적 유능성을 측정하였다. 판별 분석 결과, 성취동기, 지능, 성격의 외향성, 지적 개방성과 유순성이 탄력 집단, 유약 집단과 취약 집단을 유의하게 변별하는 보호요소들로 밝혀졌다. 특히, 성격의 외향성, 성취동기와 지능이 탄력적인 소년소녀가장을 판별하는 데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소년소녀가장, 탄력성, 사회적 유능성, 주관적 안녕감, 지능, 성격, 성취동기

오늘날 세계적으로 물질문명의 혜택과 향유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폭력, 질병, 가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범죄와 비행, 우울과 자살 등의 심리적 문제나 사회적 문제로 고통을 겪는 청소년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위협적인 삶의 환경들과 그로 인한 각종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고통에 어떻게 대처하

고 적응하느냐가 청소년들의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Compas, Hinden, & Gerhardt, 1995). 이러한 삶의 위협과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성공적 적응이나 발달을 성취하는 능력을 탄력성(resilience)이라고 한다(Luthar, Cicchetti, & Becker, 2000). 즉, 탄력성은 생물학적 위협이나 스트레스적인 생활사건에 노출된 개인의 성공적인 적응을 의미하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7-C00797).

* 교신저자: 박경자, E-mail: kjpark@yonsei.ac.kr

며, 발달 과정 중에 직면할 수 있는 위험요인의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탄력성은 심각한 위험 또는 역경을 경험한 개인이 그와 같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발달적 결과, 즉, 성공적인 적응을 한 것으로 정의된다. 이런 점에서 탄력성은 개인에 내재하는 고정된 성격 특성을 나타내는 자아-탄력성과는 구별된다.(장휘숙, 2001; Fergus & Zimmerman, 2005; Luthar, 1991; Masten, 2001; Masten & Coatsworth, 1998).

최근의 탄력성 연구들은 보다 구체적인 대상의 구체적인 맥락에서의 탄력적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Ewart, Jorgmsen, Suchday, Chen, & Matthews, 2002; Fergus & Zimmerman, 2005). 이러한 새로운 탄력성 연구의 움직임은 탄력성의 내용에 있어서 사회적 탄력성, 학업 탄력성, 관계적 탄력성 등의 연구로 나타나고 있다(박현선, 1998; Gordon-Rouse, 2001; Olsson, Bond, Burns, Vella-Brodrick, & Sawyer, 2003). 또한 연구 대상에 있어서도 빈곤 가정, 입양이나 보호 시설, 부모의 이혼 등과 같이 구체적인 어려움을 가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탄력성 연구의 최근 경향에 맞추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힘든 역할을 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이들의 적응과 관련된 개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소년소녀가장은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질병, 심신장애, 가출, 복역 등으로 부모가 없거나 또는 노동력과 생활능력이 없는 직계(방계) 혈족과 동거하거나 소년소녀 단독으로 생활하는 가구로 정의된다(보건복지부, 2008). 보건복지부(2008) 통계에 의하면, 소년소녀가장은 IMF 직후에 급속히 증가한 후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2008년 현재 전국적으로 2,501명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소년소녀가장 청소년은 또래들에 비해 더 많은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어 발달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다. 즉, 부모의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초 생계비 부족이라는 절대적 빈곤에 처해 있다(변화순, 송다영, 김영란, 2001; 오승환, 2000a; 2000b). 이러한 경제적 곤란과 함께 부모 상실에 따른 심리·정서적 문제, 역할 갈등 문제, 이성 친구 및 진로 등의 교육 문제와 성인의 부재로 인하여, 높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변화순 등, 2001; 오승환, 2000a; 2000b; 이선아, 2003). 이러한 문제들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역경이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빈곤, 부모의 부재 등 위험요인이 아동에게 항상 부정적인 발달의 결과를 야기하지는 않으며, 위험요인이 많은 상황에 있더라도 긍정적인 적응을 이루는 아동도 많다(Egeland, Carlson, & Sroufe, 1993; Garnezy, Masten, & Tellegen, 1984; Masten, Hubbard, Gest, Tellegen, Garnezy, & Ramirez, 1999).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빈곤 가정 청소년들의 연구(박현선, 1998; 최윤정, 권현진, 이시연, 2004)와 소년소녀가장들의 연구(오승환, 2000a; 2000b; 이선아, 2003)들이 진행되었는데, 소년소녀가장들 중에는 그들이 지닌 열악한 상황을 잘 극복하고 잘 적응하고 있는 청소년도 꽤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심리적으로 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중 적응에 있어 탄력성을 보인 아동들의 보호 요인으로서 개인 특성을 탐색해 보는 것이다.

개인의 성공적인 적응을 가져오는 보호 요인은 크게 개인 특성, 가족 특성, 가족 외적 특성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연구되어 왔다. 개인 특성 요인은 개인이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잘 헤

쳐 나갈 수 있는 개인 내적인 능력으로, 지능이나, 성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그 외 자기 효능감, 내적 통제 소재, 자아 강도 등이 연구되어 왔다(유성경, 심혜원, 2002; Olsson, et al., 2003). 가족 특성으로는 부모와의 애착, 가족의 응집성, 부모의 양육 태도와 가정의 규칙과 구조화 등의 변인들이 연구되었다. 가족 외적 특성으로는 또래와 교사 관계, 학교 경험, 지역사회 기관과의 유대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탄력성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많이 연구되지 않은 지능, 성격과 성취동기의 개인 특성이 소년소녀가장의 탄력성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능은 탄력성의 연구에서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서 위험요인이 많은 대상들에게 탄력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행동을 가져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Masten, 2001; Masten et al., 1999). 지능은 개인이 자신의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지각하거나 경험하고, 상황을 판단하면서 적절한 대처반응을 결정하게 한다(Lazarus & Folkman, 1984). 그런 의미에서 지적 능력이 높으면, 스트레스를 주는 외적 환경이나 위험한 역경 생활사건에서도 대처와 적응을 잘 하도록 해 준다. 선행 연구에서도 높은 지능은 보다 분석적이고, 창조적이고 실제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의미한다고 보고되었다(Sternberg, 1998). 실제로 몇몇 종단 연구(Egeland, Carlson, & Sroufe, 1993; Radke-Yarrow & Sherman, 1990)에 의하면 아동기의 지능이 후의 부적응에 대한 보호요인이라는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다. Werner(1993)는 아동의 10세 때의 지적능력이 18세에 자기효능감과 심대 또래의 지지와 긍정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또한 탄력적인 아동들은 타고난 영재들은 아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사용하는데 능숙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와 같이 국외의 연구들은 지능이 탄력적인 적

응에 있어서 중요한 변인임을 밝히고 있지만, 국내의 연구에서 지능을 주요 변인으로 살펴본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몇몇 국내 연구(이용준, 박경자, 2005; 주소영, 이양희, 2008)에서 탄력적인 집단의 지능이 가장 높았고 매개변인으로서 인지 기능이 탄력성과 높은 상관을 보여 탄력적 집단의 적응에 있어 지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Luthar(1991)에 의하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의 높은 지능은 학업 유능성에서는 가장 뚜렷한 보호요인이지만,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여 취약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성격은 행동을 매개하는 요인으로서 동일한 상황이라도 성격에 따라 다른 해석과 반응양식으로 나타내므로 적응, 부적응 행동, 사회적 관계망, 성취동기 등에 있어 개인차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다. 성격은 연구 대상이 어린 아동인 경우 주로 기질로서 개념화되어 왔고, 이러한 기질이 청소년기에도 발달적으로 적절한지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Davey, Eaker, & Walters, 2003). 최근의 연구는 외향성, 정서적 안정성, 개방성, 성실성, 호감성을 성격의 5요인으로 구조화하였는데, 성격의 어떤 측면이 탄력성과 관계가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 있는 일이다.

각 요인을 살펴보면, 외향성은 타인과의 교제나 상호작용을 원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 요인의 특성은 긍정적이고, 자기 주장적이며, 사교적이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며, 활동적이고, 따듯하다. 정서적 안정성은 정서적 불안정, 환경에 대한 민감성, 불안감, 피로감, 긴장의 정도를 나타낸다. 이것은 걱정이 많고, 화를 잘 내며, 긴장되어 있고 성미가 급하며, 자의식이 강하고, 감정적이며, 상처받기 쉬운 특성을 지닌다. 개방성은 지적 자극, 변화, 다양성을 좋아하

는 정도를 나타낸다.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조적이며, 독창적이고, 다양성을 선호하며, 호기심이 많고, 개방적이다. 성실성은 사회적 규칙, 규범, 원칙들을 기꺼이 지키려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 요인의 특성은 성실하고, 근면하며, 계획적이고, 세심하며, 의욕적이고, 참을성이 많다. 마지막으로 호감성은 타인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호감성이 높은 사람은 온화하고, 친절하며, 관대하고, 순종적이며, 다정하다(한태영, 2005; Davey, Eaker, & Walters, 2003; Friberg, Barlaug, Martinussen, Roseninge, & Hjemdal, 2005).

성격을 변인으로 한 기존의 연구는 많지 않지만, Block과 Kremen(1996)의 연구는 자아탄력성을 나타내는 청소년들이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고, 외향적이고 타인에게 호감을 주는 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또한 Robins, John, Caspi, Moffitt와 Stouthamer-Loeber(1996)는 10세의 미국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2년간의 종단 연구에서 자아 탄력적인 아동은 자기 주장적이고, 언어적 표현력이 풍부하고, 자신감이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 다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탄력성이 높은 집단의 청소년들은 성격프로파일에서 외향성, 유순성, 지적 개방성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Davey, Eaker, & Walters, 2003; Friberg, et al., 2005).

성취동기는 과제해결 능력, 학업 성취는 물론 대인관계와 사회적 적응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의미 있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Atkinson(1964)은 개인이 지닌 성취동기 수준과 환경요인과의 상호작용을 주장하며, 개인의 성취욕구와 환경 내에서 개인이 성취를 통하여 목표를 획득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정도에 따라서 성취행동의 경향성이 결정된다고 하였다(Shaffer, 2005, 재인용).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감과 적절한 모험심을 가지며,

과제 지향적이고 새로운 일을 좋아하며 자신에 대한 신뢰와 책임감이 높은 동시에 높은 성취만족을 기대하는 행동을 보인다. 반면, 성취동기가 낮은 개인들은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일을 선호하고 성공에 대한 희망보다 실패에 대한 불안과 회피가 크다고 한다(이경남, 2006).

따라서 높은 성취동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끈기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데 현재의 상황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더라도 목표에 따라 환경을 변화시켜 어떤 일을 성취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취동기는 학업성취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의 직업을 획득하는 것과 같은 실제적인 성취와 관련이 깊다. 그러므로 성취동기는 학업성취와 진로선택 등이 중요한 발달 과제가 되는 청소년기에 개인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이운경, 도현심, 2005; Ryan & Deci, 2000).

최근 연구들은 탄력성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외적 측면과 내적 측면의 두 가지 측면의 준거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탄력적인 집단은 어떤 영역에서 높은 유능성을 보일지라도 또 다른 영역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즉, 비행, 공격성, 학업성적, 사회적 유능성 등의 외적 준거로서의 유능성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울, 불안, 정서적 불안정성, 심리적 안녕감 등의 내적인 준거는 간과되어 왔다(Hauser, 1999; Luthar, 1991; Masten & Coatworth, 1998). 국내의 연구들도 탄력성 평가에서 학업 성적, 징계처벌 경험, 학교적응 등의 외현적 준거들이 주로 사용되었고(박현선, 1998; 양국선, 장성숙, 2001), 내적인 준거들을 반영하는 경우가 드물었다(유성경, 심혜원,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탄력성의 두 가지 준거, 즉 외적 준거로서의 사회적 유능성과 내적 준거로

서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여 성공적인 적응으로서의 탄력성을 통합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이 두 가지 준거에 의해 성공적인 적응을 나타낸 소년소녀가장과 그렇지 않은 소년소녀가장의 차이를 가져오는 개인 특성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즉, 소년소녀가장이라는 유사한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탄력 집단과 잘 적응하지 못한 비탄력적인 집단을 비교하여 집단 간 차이를 가져오는 개인특성들이 무엇인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목적 아래,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지능, 성취동기, 성격의 개인 특성은 소년소녀가장의 적응수준에 따른 탄력 집단, 유약 집단과 취약 집단을 어느 정도 판별하는가?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학교 1, 2, 3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104명의 소년소녀가장(남학생 50명, 여학생 54명)이었다. 연구 대상은 '보건복지통계연보(2007)'에 의해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소년소녀가장세대 현황을 참고로 하여 선정하였다.

본 연구 대상의 학년별,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먼저, 학년별 구성은 1학년이 남학생 18명, 여학생 14명으로 32명, 2학년은 남학생 11명, 여학생 17명으로 28명, 3학년은 남학생 21명, 여학생 23명으로 44명이었다. 연구 대상의 성별 구성은 남학생이 50명, 여학생이 54명으로 비슷하였다.

연구 대상 가족의 특성으로서 학생들의 동거 가

표 1. 연구대상의 학년별·성별 사례수

학년	남(%)	여(%)	소계
1학년	18(56.3)	14(43.8)	32(30.8)
2학년	11(39.3)	17(60.7)	28(26.9)
3학년	21(47.7)	23(52.3)	44(42.3)
소계	50(48.1)	54(51.9)	104(100)

족을 보면, '조부모'와 거주하는 경우가 56명(53.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세대원으로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26명(25%), '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11명(10.5%), '친인척'과 거주하는 경우 8명(7.7%), '홀로 거주' 학생이 2명(1.9%), '아는 사람'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1명(1.0%)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년소녀가장으로 분류된 중학생들이 홀로 거주하거나 형제자매들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27%)보다 조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측정 도구

사회적 유능성

소년소녀가장의 사회적 유능성은 Hightower와 동료들(1986)이 개발한 The Teacher-Child Rating Scale(TCRS)을 정현희(2002)가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한국판 교사용-아동 평정척도(TCR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교사가 질문지에 제시된 문항을 읽고 해당 문항이 얼마나 아동을 잘 묘사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도구는 총 38문항으로 유능성 영역과 문제행동 영역의 두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능성 영역은 좌절 인내, 자기 주장적 사회 기술,

과제 지향, 또래 관계 기술 등을 측정하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유능성이 높다. 문제행동 영역은 외현화 문제, 수줍음-불안, 학업 문제를 측정하는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예비 조사 결과, 유능성 영역의 과제지향 문항인 '어른의 도움이 없이도 공부를 잘한다'의 문항에 대해 교사들이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여 그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19문항의 유능성 문항과 18문항의 문제행동 문항을 합쳐 총 37문항을 사용하였고 평정 척도도 4점 척도로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유능성 영역의 19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86, 문제행동 영역의 18문항에 대한 Cronbach α 는 .89로 나타났다.

주관적 안녕감

소년소녀가장이 지각하는 주관적 안녕감은 Keyes(2006)가 성인용 주관적 안녕감 척도를 12-18세의 청소년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을 번안·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적 안녕감(3문항), 심리적 안녕감(4문항), 사회적 안녕감(5문항)의 세 가지 하위 영역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 가지 영역을 합산한 총점으로 주관적 안녕감의 정도를 나타낸다.

소년소녀가장 청소년은 각 문항의 내용에 대해 지난 한달 동안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에 따라 '전혀 느끼지 못했다(1점)'에서 '매일 느꼈다(6점)'의 6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예비 조사 결과, 청소년들이 자신의 느낌을 6점 척도로 세분화하는 것을 어려워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거의 매일 느꼈다(4점)'의 4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85였다.

지능검사

소년소녀가장의 지능은 박경숙, 현주, 박호정과 이재분(1993)에 의해 표준화된 중학생용 'KEDI 집단지능검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검사는 언어, 수, 공간의 세 가지 하위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 검사는 단어 유추와 문장 이해·적용의 두 가지 하위검사로 구성되어 있고, 수 검사는 수열, 수공식, 문장제의 세 가지 하위 검사, 공간 검사는 나무도막 세기와 도형 유추의 두 가지 하위검사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문항 수는 115문항으로 소요시간은 60분 정도였다. 연구자 중 한 명이 연구 대상들에게 검사 지침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능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검사의 신뢰도는 .88이고 타당도는 .86이다.

성격검사

소년소녀가장의 성격은 5요인 성격이론에 기초한 중·고생용 'Big Five 성격 특성 검사(한국적성연구소, 2004)'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검사는 Costa와 McCrae에 의해 구조화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적성연구소에 의해 표준화되었다. 이 검사는 외향성,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 지적 개방성, 유순성 등의 5개의 요인으로 성격특성을 분류하여, 사회적 행동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를 보여 줄 수 있는 검사이다. 본 검사는 5점 척도의 총 2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검사시간은 약 50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자 중 한 명이 연구 대상들에게 검사 지침에 따라 개별검사를 하였는데 학생들은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을 잘 설명하는 문항에 응답하였다.

성취동기

소년소녀가장의 성취동기는 Herman(1970)의 성취동기 검사(Prestatic Motivatie Test)를 이운경과 도현심(2005)이 번역한 것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였다. 이 도구는 주어진 문항의 내용에 대해 평소 자신의 생각을 잘 나타낸다고 느끼거나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 중의 하나를 선택하며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문항 중 아동발달 전문가와 심리학 박사에게 안면 타당도를 검토 받아, 내용에 적합하지 않거나 반복 문항은 제외하고 요인 분석을 통해 요인 부하량이 높은(.50이상) 12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적절한 요인의 수를 알아보기 위해 스크리 검사 결과 한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단일 요인으로 취급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취동기의 내적 합치도 Cronbach α 는 .84로 나타났다.

절차

자료수집

본 조사에 앞서 측정도구들이 연구 대상인 중학생에게 적합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2007년 10월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서대문구에 있는 두 곳의 중학교에서 8명의 중학생(남학생 4명, 여학생 4명)을 선정한 후, 방과 후 개별 면접을 실시하였다. 개별 면접은 50분에서 90분 정도가 소요되었고, 질문지 실시 결과를 통해 변별력이 없거나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또한 담임교사에게 연구 대상의 사회적 유능성 평가를 의뢰하였고, 이를 통해 적합하지 않은 문항이나 모호한 문항과 척도의 평가방식을 수정하였다.

본 조사를 위해 2008년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와 경기도의 구청과 동사무소, 복지재단의 담당자들이 해당 지역에서 본 연구 대상에 해당되는 학생들에게 연락하여 동의를 얻었다. 연구자는 연구 대상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연구의 목적과 내용, 소요시간을 설명한 뒤, 연구에 동의한

학생에 한하여 집을 방문하거나 적합한 제 3의 장소(학교, 복지관 등)에서 만나 개별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2시간 정도였다.

교사들이 평가하는 사회적 유능성 설문지 자료는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담임교사들에게 연구의 내용을 설명하는 안내문과 함께 우편으로 전달하였다. 교사들의 평가 설문지는 7월과 8월에 걸쳐 106명의 연구대상 학생 중 회수된 교사 104명의 평가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윈도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배경 및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적 통계치를 산출하였고 주요 변인들의 기술적인 경향을 알아보고자 각 측정변인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측정변인들의 점수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둘째, 탄력집단과 비교집단의 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집단을 판별하는 개인특성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측정 변인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표 2 참조). 지능 점수는 표준화된 T점수로 환산된 점수를 사용하였는데, 연구 대상 청소년의 평균 지능 지수는 109.47로서 지능 지수의 평균 100점(표준편

표 2. 측정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내용	남학생(n=50) M(SD)	여학생(n=54) M(SD)	M(SD)	t
지능	IQ	108.02(18.67)	110.81(15.59)	109.47(17.11)	-.83
성격	외향성	51.40(8.41)	49.24(7.85)	50.28(8.16)	1.35
	성실성	49.66(7.70)	47.35(8.28)	48.46(8.05)	1.47
	정서적안정	49.10(8.16)	50.57(8.19)	49.87(8.17)	-.92
	지적개방성	49.30(6.63)	49.65(5.35)	49.48(5.97)	-.30
	유순성	51.80(7.94)	51.26(7.40)	51.52(7.63)	.36
성취동기	성취동기	2.45(.55)	2.32(.53)	2.38(0.54)	1.15
사회적 유능성	유능성	2.47(.34)	2.57(.44)	2.52(0.40)	-1.26
	문제행동	2.27(.53)	2.16(.43)	2.21(0.48)	1.17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	2.56(.57)	2.53(.48)	2.54(0.51)	.29

차 16)과 전국 평균 범위 90-109를 고려할 때, 일반적인 지능검사의 평균보다 약간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성격의 5요인도 표준화된 T점수로 환산되었는데, 외향성의 평균은 50.28, 성실성은 48.46, 정서적 안정성은 49.87, 지적개방성은 49.48, 유순성은 51.52로 나타났다. 성격 검사의 표준점수 평균이 50임을 고려할 때, 본 연구 대상 학생들이 성격의 5요인은 평균 수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성취동기의 문항 평균은 2.38로 나타났다. 이는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 중 성취동기가 '약간 그런 편이다(2점)'라는 2점 척도보다는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다.

소년소녀가장들의 사회적 유능성을 살펴보면, 유능성의 문항평균은 2.52로서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 중 '그렇지 않다'에서 '그런 편이다'에 해당하였다. 한편 문제행동에 있어서 문항평균은 2.21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렇지 않다(2점)'와 '그런 편이다(3점)' 중에서 '그렇지 않다'에 더 가까운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안녕감은, 2.54로서 '가끔 그렇다(2점)'에서 '자주 그렇다(3점)'의 중간 정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측정변인들의 점수가 연구대상 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한 결과, 측정 변인들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후의 결과는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적응 수준에 따른 집단 구분

소년소녀가장 청소년들은 모두 가정 환경적 위협요인으로 인해 고위험 군에 속하므로, 적응의 평가 준거인 사회적 유능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에 따라 탄력 집단, 유약 집단과 취약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집단을 구분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유능성 점수와 주관적 안녕감 점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상·하 집단을 분류하였다. 이 때 사회적 유능성은 유능성과 문제 행동의 두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두 영역의 각각의 평균을 중심으로 상·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표 3. 집단 구분의 기준 및 인원 수

구분	주관적 안녕감 상	주관적 안녕감 하
사회적 유능성 상	A집단 (탄력집단) 23명(22.1%)	B집단 (유약집단) 19명(18.3%)
사회적 유능성 하	C집단 (제외집단) 13명(12.5%)	D집단 (취약집단) 49명(47.1%)

집단 구분 결과, 사회적 유능성과 주관적 안녕감 점수에 따라 A집단(23명), B집단(19명), C집단(13명)과 D집단(49명)의 네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A집단은 사회적 유능성과 주관적 안녕감이 높고 고위험 상황에서 높은 적응수준을 보인 경우이므로 ‘탄력 집단’으로 명명하였고, D집단은 사회적 유능성과 주관적 안녕감이 모두 낮고 고위험 상황에서 낮은 적응수준을 보인 경우이므로 ‘취약집단’으로 명명하였다. B집단은 교사가 평가한 사회적 유능성이 높고 비교적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자신이 평가한 주관적 안녕감은 낮았다. 이 집단은 선행연구에서는 논의된 바가 없으나, 이를 ‘유약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C집단은 교사가 평가한 사회적 유능성이 낮고 연구 대상 자신이 평가한 주관적 안녕감은 높은 집단인데, 점수의 편차가 심하여 집단 정의가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A, B, D의 세 집단만 분석 대상으로 정하였다. 집단 구분을 위한 기준은 아래의 표 3에 제시하였다.

집단 구분을 변별하여 주는 개인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적 판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능, 성취동기와 외향성, 유순성, 지적 개방성, 성실성과 정서적 안정의 성격의 5가지 개인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판별 분석을 한 후, 탄력 집단, 유약 집단과 취약 집단의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판별함수의 기본 가정인 집단 간의 분산이 같은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공분산 행렬의 동

표 4. 개인 특성에 대한 집단 통계량 및 집단 간 차이 검증

		탄력집단 <i>M(SD)</i>	유약집단 <i>M(SD)</i>	취약집단 <i>M(SD)</i>	전체 <i>M(SD)</i>	Wilk's λ	<i>F</i>
지능		121.39 (16.96)	112.84 (13.58)	104.04 (15.44)	110.26 (16.99)	.812	10.16***
성취동기		2.72 (.51)	2.40 (.39)	2.14 (.51)	2.34 (.55)	.798	11.16***
성	외향성	56.61 (6.60)	47.42 (13.58)	47.78 (7.89)	49.93 (8.38)	.783	12.20***
	지적 개방성	48.79 (5.83)	48.11 (6.54)	48.04 (6.03)	49.18 (6.15)	.902	4.81*
	유순성	52.48 (5.03)	52.32 (6.18)	49.55 (7.93)	51.41 (7.89)	.925	3.57*
격	성실성	51.22 (10.22)	47.63 (8.92)	46.83 (6.99)	48.10 (8.42)	.952	2.22
	정서적 안정	52.33 (9.09)	47.00 (6.77)	49.63 (7.68)	49.77 (8.01)	.948	2.41

* $p < .05$, ** $p < .01$, *** $p < .001$

표 5. 판별함수의 유의도

함수	고유값	공통 변량(%)	정준 상관계수	Wilk's λ	χ^2	자유도
1	.64	87.9	.62	.56	49.15***	14
2	.09	12.1	.28	.91	7.18	6

*** $p < .001$

일성 가정에 위배되지 않았다(Box's $M = 55.57, p = .77$). 또한 판별력에 대한 유의성을 검토하기 위해 Wilk's λ 에 대한 χ^2 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함수 1이 함수 2에 비해 고유값과 정준상관계수가 더 크기 때문에 더 적합한 판별함수라 할 수 있다.

탄력 집단의 판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해 표준화된 함수 계수와 구조 행렬을, 각 집단의 특징을 판단하기 위해 정준판별 계수와 각 집단원들의 판별 점수의 평균인 집단 중심값을 표 6에 제시하였다. 2개의 함수

중 함수 1이 더 적합하므로 함수 1에서 구조행렬의 절대값이 큰 성격의 외향성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성취동기, 지능 순으로 중요하게 나타났다. 즉 연구 대상의 외향성 정도와 성취동기에 따라, 그리고 지능 지수가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 어떤 유형의 집단에 속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 그 외에 지적 개방성, 유순성과 성실성도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 집단에 속한 소년소녀가장들의 개인 특성을 살펴보면, 성격의 외향성, 지능과 성취동기가 높았다. 성격의 외향성의 점수 범위는 최소 44점에

표 6. 개인 요인에 따른 직접적 판별분석 결과

예측변인	표준화 판별계수		구조행렬		정준판별 계수		
	함수 1	함수 2	함수 1	함수 2	함수 1	함수 2	
지능	.54	-.29	.58*	-.46	.04	-.02	
성취동기	.43	-.44	.62*	-.40	.87	-.88	
성격	외향성	.61	.53	.64*	.41	.08	.07
	지적 개방성	.08	.22	.41*	.21	.01	.04
	유순성	-.11	-.46	.34*	-.30	-.01	-.06
격	성실성	-.01	.20	.28*	.02	-.00	.02
	정서적 안정	.21	.51	.21	.56*	.03	.07
상수					-11.12	-2.52	
집단 중심값							
집단 유형		함수 1		함수 2			
탄력 집단		1.32		.10			
유약 집단		-.16		-.57			
취약 집단		-.56		.17			

주: * 는 각 변인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함수를 표시하는 부호임.

표 7. 집단분류 결과표

실제 집단	예측 집단			전체(%)
	탄력 집단(%)	유약 집단(%)	취약 집단(%)	
탄력 집단	15(65.2)	4(17.4)	4(17.4)	23(25.3)
유약 집단	2(10.5)	13(68.4)	4(21.1)	19(20.9)
취약 집단	8(16.3)	17(34.7)	24(49.0)	49(53.8)
전체	25(27.5)	34(37.4)	32(35.1)	91(100)

분류 정확률 = (15+13+24)/91 = 57.1%

서 최고 71점의 범위로서 53점 이상이 17명으로 나타났다. 지능 점수는 최소 93점에서 최고 151점이었고, 탄력 집단의 16명이 113점에서 151점의 점수분포를 나타내어 전체 평균(109.47)보다 상당히 높았다. 또한 성취동기에 있어서도 17명의 탄력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은 문항 평균(2.38)을 넘는 문항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탄력성이 높은 소년소녀가장들은 다른 집단 구성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격의 외향성, 지능과 성취동기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에 따르면, 함수 1에 의한 탄력 집단의 중심값은 1.32이고 취약 집단은 -.56 으로 나타나 함수 1에 의해 탄력 집단과 취약 집단이 잘 구별되었고 유약 집단의 중심값은 -.16으로서 탄력 집단과 취약 집단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다음은 분류 함수가 개인 특성에 따라 각 집단을 얼마나 잘 분류하는지 살펴보았다(표 7 참조). 탄력 집단 구성원인 경우, 이를 올바르게 판별할 경우는 23명 중 15명으로서 65.2%이지만, 유약 집단이나 취약 집단으로 잘못 판별할 경우는 34.8%이다. 유약 집단 소년소녀가장들 중 유약 집단으로 예측되는 경우는 19명 중 13명(68.4%)이며, 취약 집단은 49명 중 24명으로 49.0%의 정확도를 보였다. 전체 91명 중 52명이 실제 집단에 정확하게 분류될 분류 정확도는 57.1%이었다.

논 의

본 연구의 대상인 소년소녀가장 청소년들은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가출 등을 경험하였고, 경제적으로 빈곤층에 속하여, 하나 이상의 복합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년소녀가장 중학생을 대상으로 적응 수준에 따라 집단을 탄력 집단, 유약 집단과 취약집단을 구분하고 유사한 위험 요인을 경험한 청소년들 중에서 집단 구분에 의미 있는 개인 특성 변인들을 판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탄력성의 정의에서 사회적 유능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두 가지 준거를 동시에 고려하였다. 이는 선행연구들(Lengua, 2002; Masten et al., 1999)에서 탄력성이 높은 개인이라도 개인적으로는 심리적 고통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주관적 안녕감을 포함하여 제 3자에 의해 유능하다고 판단되는 동시에 본인 스스로도 심리적 고통이 크지 않은 개인을 탄력성이 높은 개인으로 정의하고자 했다.

탄력적인 집단, 유약 집단과 취약 집단을 의미 있게 변별해 주는 개인 요인들을 살펴보면, 세 집단을 구분하는데 가장 기여도가 높은 변인으로 성격의 외향성, 성취동기, 지능, 성격의 지적 개방성과 유순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격의 세 요인은 탄력성을 나타내는 종속변인과 높은 상관관

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성격은 지능에 비해 탄력성 연구에서 많은 논의가 되어 오지 않았지만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능이 높은 개인들이 탄력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선행연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나, 성격과의 관계를 살피고자 하는 노력은 초기 단계에 있어 추후 이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선행연구들은 탄력성에 있어서 기질이나 성격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유아와 아동기의 기질을 통해 탄력성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데(Luthar, 1991; Werner & Smith, 1982; 1992), 지능이 아주 높지 않고 평균 정도라도 사회적 관계를 잘 하고, 성격의 요인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면,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Werner와 Smith(1982)는 탄력성을 보이는 유아들은 성격적으로 유순하고 사교적이고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고 보고했다. Davey등(2003)은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성격을 변인으로 판별 분석을 한 결과, 위험 요인이 많은 상황에서 탄력성이 높은 학생들의 성격 특성은 외향성, 유순성과 지적 개방성이었다고 한다. 이는 본 연구의 탄력 집단에서 나타난 성격 특성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성격의 외향성은 외부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반응을 나타내므로, 타인에게 관심이 많고, 사교적이고 긍정적이면서 자기 주장적인 면을 의미한다. 이 요인은 성취 지향성과 사교성의 두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성격의 지적 개방성은 지적 자극, 변화와 다양성을 선호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들은 상상력이 풍부하며 창의적이고 도전적이며 지적으로 민감한 특성을 지닌다고 한다(한태영, 2005; Gramzow, Sedikides, Panter, Sathy, Harris, & Insko, 2004; Hart, Keller, Edelstein, & Hofmann, 1998). 이러한 성격의 외향성과 지적 개방성은 성

취동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특히, 내재 동기는 지적 개방성과 외향적 요인과 관련이 깊다고 한다(Davey et al., 2003; Gramzow et al., 2004).

성격의 유순성은 타인과 평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격 유형에 점수가 높다는 것은 온화하고 친절하며, 관대하고 다정한 사람임을 뜻한다(한태영, 2005; Friborg et al., 2005; Gramzow, et al., 2004; Luthar, 1991). 유순성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필요성을 충족시켜주는 경향성이 높고 정서적 민감성이 높으며, 또래 관계, 다른 사회적 관계, 일처리에 있어서도 민감성을 발휘하여 타인으로부터 유능하다고 평가된다.

지능은 탄력성과 관련된 요인 중 가장 많이 논의되어 왔으며, 강력한 예측 요인으로 설명되어 왔다. 선행 연구들은 사회적 유능성이나 탄력성에 있어서 지능의 중요성을 지적해 왔다(Ewart, et al., 2002). Piaget가 지능을 ‘유기체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라고 정의(Miller, 2002)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능이 높다는 것은 개인이 속한 환경에 맞도록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위 환경에의 적절한, 적응은 사회적 유능성 뿐만 아니라 주의 집중, 기억과 실행 기능, 학업성취와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지능은 위협에 처한 아동들에 있어서 중요한 보호요인의 하나로서 지능이 높으면 논리적 추론이 가능하고, 사회적 규칙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을 용이하게 해 준다. 또한 지능이 높으면 언어를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고,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행동보다는 언어를 사용하여 갈등 상황을 훨씬 더 잘 다룰 수 있다. 높은 지능이 문제해결 능력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고한 연구들도 있다 (Dirago & Vaillant, 2007; Friborg et al., 2005).

본 연구에서도 탄력 집단 구성원들의 지능은

121.40점으로 연구대상 전체의 평균인 109.47점과 비교할 때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많은 선행 연구(이용준, 박경자, 2005; Egeand et al., 1993; Luthar, 1991; Masten, Coatsworth, Neeman, Gest, Tellegen, & Garnezy, 1995; Masten et al., 1999; Owens & Shaw, 2003)들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도 지능은 소년소녀가장의 탄력성을 예언하는 중요한 지표로 발견되었다. 그러나, 외현화 문제 행동이나 위축된 모습, 학업 문제 등 문제 행동의 보호요인으로서 지능은 연구 대상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 위험요인이 많은 대상에게 지능이 일반적으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위험요인이 많은 빈곤층의 경우 지능이 문제 행동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보고도 있다(Luthar, 1991). 본 연구에서도 지능이 높을수록 탄력성이 높다는 것은 위험요인이 많은 환경에서 그러한 상황에 잘 대처하여 부정적 결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이용준, 박경자, 2005; 주소영, 이양희, 2008; Dirago & Vaillant, 2007; Friberg et al., 2005; Luthar, 1991; Masten, et al., 1999).

지능과 성격이 모두 유전적 영향을 배제할 수 없지만, 성격은 개인의 노력에 의하거나 환경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유형이 탄력성과 일관되게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추후에 성격이 탄력성의 어떤 부분과 구체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탄력성을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본다면, 의미 있는 주제가 될 것이다.

성취동기는 개인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촉진되거나 억제 되어 개인차가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볼 때(Shaffer, 2005), 지적 성취와 향후 사회적 적응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탄력 집단 소년소녀가장의 성취동기는 2.75로서 매우 높지는

않지만, ‘약간 그런 편이다(2점)’에서 ‘그런 편이다(3점)’사이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성취동기는 학업 성취에 대한 동기에 관한 문항과 일반적인 성취동기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문항평균 2.38의 성취동기를 고려할 때 탄력 집단의 구성원들이 현재의 상황을 더 나은 목표를 향해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높은 성취동기는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끈기 있게 대처할 수 있게 하며,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데 현재의 상황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더라도 목표에 따라 환경을 변화시키며 어떤 일을 성취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한다(이운경, 도현심, 2005; Ryan & Deci, 2000). 그러므로 높은 성취동기를 가진다면, 상황이 뜻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도 목표 수정이나 행동 양식을 바꾸어 자신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또한 성취동기는 과거의 자기 효능감과 자존감과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에 대한 좌절이나 인생의 역경에 있어서 문제행동으로 전환되기 보다는 조언을 구하거나, 새로운 전략이나 시도를 하게 되므로,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을 할 기회는 줄어들 것이다(Dass-Brailsford, 2005).

선행연구들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부모의 지원에 의해 성취동기가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하지만, 결핍된 상황을 탈피하려는 욕구가 성취동기를 높이고 자기 효능감도 높일 것이다. 실제로 학교 중퇴 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가정의 구조적 결손이 큰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더 높은 성취태도를 보였다는 결과도 있다(양국선, 장성숙, 2001). 그러므로 이러한 성취동기를 가지고 환경을 극복해간다면, 더 나은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으로 연결되어 높은 사회적 유능성을 발휘할 것이다(Dass-Brailsford, 2005).

본 연구에서 환경적 위험 요인이 있는 소년소녀

가장들을 판별분석을 통해 탄력 집단, 유약 집단과 취약 집단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집단 구분에 있어서 앞서 논한 탄력 집단의 특성들은 매우 뚜렷하며 분류 정확율도 비교적 안정되고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유약 집단의 분류 정확율은 중간 정도이고 취약 집단의 분류 정확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의미에서 탄력 집단의 예측은 안정성이 있으나, 유약 집단과 취약 집단의 예측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약 집단과 취약 집단은 개인 특성의 변화에 따라 집단 간의 이동이 유동적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집단 구성원의 노력 정도에 따라 발달궤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인중심 접근방법에 의한 집단 구분은 유기체와 환경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개인들에 특수한 일화나 경로를 통해 개인의 생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이 되는 요인의 선택과 기회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탄력 집단의 청소년들은 좀 더 건강한 환경을 선택하고,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찾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발달 이론을 실현시키고 있는 것이다(Elder, 1998; Masten, 2001; Scarr, 1992; Scarr & McCartney, 1983).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기초하여 본 연구 결과가 가지는 의의와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빈곤 청소년이나 소외된 그룹에 대한 연구가 있었지만, 소년소녀가장 같이 구체적인 대상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아 연구자가 소년소녀가장이라는 구체적 연구 대상을 직접 만나 일대일 면접으로 자료를 수집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둘째, 탄력성의 측정에 있어서 내·외적 준거를 사용하여 탄력성의 다차원적인 검증을 시도하였다.

탄력성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외적 준거에 근거했을 뿐만 아니라, 주관적 안녕감이라는 연구대상 스스로가 느끼는 삶의 질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내적 준거를 함께 사용하여 그동안의 탄력성 연구에서 지적되어 온 단점을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러한 내적 준거의 적용을 통해 새로운 집단인 '유약 집단'을 찾았다는 점도 본 연구의 성과라고 하겠다.

셋째, 개인중심 접근방법을 통하여 탄력성이 높은 집단과 비교 집단의 구체적인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세 집단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향후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발달과 교육과 관련된 정책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면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에 거주하는 중학생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목적표집을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 응한 학생들은 전체 표집의 일부뿐이면서 모두가 연구 참여의 자발성을 가진 재학생이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를 소년소녀가장 대상 전체에게 일반화할 때는 주의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청소년들도 포함하는 다양한 배경과 연령의 대상들이 참여하는 보다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탄력성의 측정에 있어서 연구 대상이 평가한 주관적 안녕감과 담임교사가 평가한 사회적 유능성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여, 탄력 집단과 취약 집단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은 가난과 부모 부재를 경험한 고위험군이므로, 탄력성의 수준을 일반 대상과 비교하거나 결과를 해석하고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는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탄력성에 기여하는 개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양적 분석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질적 분석 방법을 병행한다면 소년소녀가장의 탄력성에 기여하는 좀 더 구체적인 개인 요인과 개인의 내적 과정에 관련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나아가 탄력성에 기여하는 환경 특성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소년소녀가장들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탄력성은 역동적인 발달 과정으로서 개인과 환경이 변화하면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Luthar, 1991; Masten et al., 1995), 한 시점에 탄력적인 개인이 다른 시점에서는 탄력적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탄력성의 안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은 중학생들이므로, 추후 상급 학교의 진학과 사회 진출 과정의 발달 궤적을 볼 수 있는 종단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박경숙, 현주, 박호정, 이재분 (1993). KEDI 집단 지능검사. 한국교육개발원.
 박현선 (1998). 빈곤청소년의 위험 및 보호요소가 학교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 연구*, 11, 24-51.
 변화순, 송다영, 김영란 (2001).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 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2007).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가족부 (2008). *아동청소년백서*.
 양국선, 장성숙 (2001).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보호요인 특성 연구: 야간 실업고등학교 근로 청소년 대상.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

료, 13(3), 127-148.
 오승환 (2000a). 소년소녀가장의 사회·심리적 적응 결정 요인. *사회복지연구*, 16, 117-141.
 오승환 (2000b). 소년소녀가장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일반아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9, 99-126.
 유성경, 심혜원 (2002).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연구*, 16(4), 189-206.
 이경님 (2006). 개인변인과 부모변인이 아동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5), 161-174.
 이선아 (2003). 소년소녀가장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용준, 박경자 (2005). 탄력적인 아동의 보호요인 연구. *아동학회지*, 26(1), 329-345.
 이운경, 도현심 (2005).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관련된 변인들: 가정의 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기대 및 정서적 지지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아동학회지*, 26(3), 43-59.
 장휘숙 (2001). 정신 병리를 차단하는 요인으로서의 탄력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1), 113-127.
 정현희 (2002). 한국판 교사용-아동평정척도(T-CRS)의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2), 73-88.
 주소영, 이양희 (2008). 아동학대와 탄력성의 관계에서 인지 기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29(3), 127-156.
 최윤정, 권현진, 이시연 (2004). 빈곤 청소년의 적응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 연구*, 11(3), 531-550.
 한국적성연구소 (2004). Big Five 성격특성검사

- (인성검사).
- 한태영 (2005). 청소년의 학교장면 스트레스: 성격 및 정서지능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2(2), 177-197.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Compas, B. E., Hinden, B. R., & Gerhardt, C. A. (1995). Adolescent development: Pathways and processes of risk and resilienc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6, 265-293.
- Dass-Brailsford, P. (2005). Exploring resiliency: Academic achievement among disadvantaged black youth in South Africa. *South African Journal of Psychology*, 35(3), 574-591.
- Davey, M., Eaker, D. G., & Walters, L. H. (2003). Resilience processes in adolescents: Personality profiles, self-worth, and coping.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8(4), 347-362.
- Dirago, A. C., & Vaillant, G. E. (2007). Resilience in inner city youth: Childhood predictors of occupational status across the lifespan.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36, 61-70.
- Egeland, B., Carlson, E., & Sroufe, L. A. (1993). Resilience as process. *Development and Psychology*, 5, 517-528.
- Elder, Jr., G. H. (1998). The life course as developmental theory. *Child Development*, 69(1), 1-12.
- Ewart, C. K., Jorgensen, R. S., Suchday, S., Chen, E., & Matthews, K. A. (2002). Measuring stress resilience and coping in vulnerable youth: The social competence interview. *Psychological Assessment*, 14(3), 339-352.
- Fergus, S., & Zimmerman, M. (2005). Adolescent resilience: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healthy development in the face of risk. *Annual Review Public Health*, 26, 399-419.
- Friborg, O., Barlaug, D., Martinussen, M., Rosenvinge, J. H., & Hjemdal, O. (2005). Resilience in relation to personality and intellig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Methods in Psychiatric Research*, 14(1), 29-42.
- Garnezy, N., Masten, A. S., & Tellegen, A. (1984). The study of stress and competence in children: A building block for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Child Development*, 55(1), 97-111.
- Gordon-Rouse, K. A. (2001). Resilient students' goals and motivation. *Journal of Adolescence*, 24, 461-472.
- Gramzow, R., Sedikides, C., Panter, A. T., Sathy, V., Harris, J., & Insko, C. (2004). Patterns of self-regulation and the big five.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8, 367-385.
- Hart, D., Keller, M., Edelstein, W., & Hofmann, V. (1998). Childhood personality influences on social-cognitive development: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5), 1278-1289.
- Hauser, S. T. (1999). Understanding resilient

- outcomes: adolescent lives across time and generation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9(1), 1-24.
- Herman, H. J. (1970). A Questionnaire measure of achievement motiv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4(4), 353-363.
- Keyes, C. L. M. (2006). Mental health in adolescence: Is America's Youth Flourishing?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6(3), 395-402.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Verlag.
- Lengua, L. (2002). The contribution of emotionality and self-regulation to the understanding of children's response to multiple risk. *Child Development*, 73(1), 144-161.
- Luthar, S. S. (1991).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A study of high-risk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2, 600-616.
- Luthar, S. S., Cicchetti, D., & Becker, B.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3), 543-562.
-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 in development. *The American Psychologist*, 56(3), 227-238.
- Masten, A. S., & Coatsworth, J. D. (1998).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favorable and unfavorable environments: Lessons from research on successful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53(2), 205-220.
- Masten, A. S., Coatsworth, J. D., Neeman, J., Gest, S. D., Tellegen, A., & Garmezy, N. (1995). The structure and coherence of competence from childhood through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6, 1635-1659.
- Masten, A. S., Hubbard, J. J., Gest, S. D., Tellegen, A., Garmezy, N., & Ramirez, M. (1999). Competence in the context of adversity: Pathways to resilience and maladaptation from childhood to late adolesc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1, 143-169.
- Miller, P. H. (2002). *Theories of developmental psychology*(4th ed.). NY: Worth Publishers.
- Olsson, C. A., Bond, L., Burns, J., Vella-Brodick, D. A., & Sawyer, S., M. (2003). Adolescent resilience: a concept analysis. *Journal of Adolescence*, 26, 1-11.
- Owens, E. B., & Shaw, D. S. (2003). Poverty and early childhood adjustment. In S. S. Luthar(Ed.), *Resilience and vulnerability: Adaptation in the contest of childhood adversities* (pp.267-287).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dke-Yarrow, M., & Sherman, T. (1990). Hard growing: Children who survive. In J. Rolf, A. S. Maten, D. Cicchetti, K. H. Nuechterlein, & S. Weintraub(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d psychopathology* (pp. 97-11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bins, R. W., John, O. P., Caspi, A., Moffitt, T. E., & Stouthamer-Loeber, M. (1996). Resilient, Overcontrolled, and undercontrolled boys: Three replicable personality types.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1), 157-171.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 Scarr, S. (1992). Developmental theories for the 1990s: Development and individual differences. *Child Development*, 63, 1-19.
- Scarr, S., & McCartney, K. (1983). How people make their own environment: A theory of genotype-environment effects. *Child Development*, 54, 424-435.
- Shaffer, D. R. (2005).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5th ed.). Belmont, MA: Thomson Wadsworth.
- Sternberg, R. J. (1998). Applying the triarchic theory of human intelligence in the classroom. In R. J. Sternberg, W. M. Williams(eds.), *Intelligence, instruction, and assessment: Theory into practice* (pp. 1-15). Mahwah: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Werner, E. E. (1993). Risk, resilience, and recovery: Perspectives from the Kauai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503-515.
- Werner, E. E., & Smith, R. S. (1982). *Vulnerable but invincible: A longitudinal study of resilient children and youth*. New York: Adams, Bannister, Cox.
- Werner, E. E., & Smith, R. S. (1992). *Overcoming the odds: High risk children from birth to childhood*.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1차 원고 접수: 2009. 07. 15.

수정 원고 접수: 2009. 08. 16.

최종 게재 결정: 2009. 08. 17.

Personal Characteristics of Resilient Adolescents from Youth-Headed Families: Intelligence, Personality, and Motivation

Nam-hee Do

Kyung-ja Park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personal characteristics that would differentiate resilient adolescents from fragile and vulnerable ones. A total of 104 adolescents from youth-headed families attending junior-high schools in Seoul and Kyounggi province participated in this study. Based on the scores of social competence and subjective well-being of adolescents, adolescents are divided three group: resilient, fragile, and vulnerable.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discriminant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the SPSS 12.0.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discriminating resilient adolescents from vulnerable ones were extroversion in personality, high intelligence, motivation, openness and agreeableness in personality. Especially extroversion in personality, intelligence and motivation were found more significant in explaining about resilient adolescents from youth-headed families. In conclusion, these findings support the previous ideas that resilient adolescents have distinctive personal characteristics in multiful domain of social adaptation.

Keywords: adolescents in youth-headed families, resilience, social competence, subjective well-being, intelligence, personality, motivation